

##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유일지도체제의 기원

김선호\*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에 한반도에 수립될 단일정부의 유일군으로 창설되었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인민군 창설 당시에 당과 정권기관에서 다른 정치세력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당과 정권기관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반면에 항일연군 출신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줄곧 군대의 지휘권과 사상교육권한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하였고, 민족운동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부여하였다.

북한의 '혁명전통'은 노동당보다 군대에서 먼저 출현했으며, 김일성은 6·25전쟁 이전에 당·정권기관이 아니라 인민군에서 유일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항일연군 출신은 군대의 사상교육권한을 활용해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국가체제의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켰다. 이들은 당·정·군 전체가 아니라 군대의 지휘권과 사상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당과 정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결국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군대 장악과 인민군의 '혁명전통'은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가 출현할 수 있는 역사적 기원이었다.

주제어: 조선노동당, 유일군, 혁명전통,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선군정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1. 머리말

북한의 군대는 국가체제의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중추 기관이라면, 군대는 국가를 보위하는 근본 무력이다. 북한 군대의 근본적인 성격은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을 때 출현하였다. 그리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당(黨)의 군대와 김일성(金日成)의 군대로 변화하였다.<sup>1)</sup> 군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체제의 본질적 성격은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출현했다. 그리고 국가체제는 6·25전쟁이 끝난 후에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唯一指導體制)로 변화하였다.<sup>2)</sup> 그런데 북한의 정치세력은 국가를 수립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정규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했고, 정규군을 바탕으로 북한식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에는 국가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담겨 있다.

북한 군대의 창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민군의 창설과정을 군사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초기의 연구는 인민군과 내무성 군대의 창설 과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되었다.<sup>3)</sup> 후기의 연구

---

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428~435쪽.

2) 북한의 유일지도체제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서울: 을유문화사, 2000);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북조선』, 서동만·남기정 옮김(서울: 돌베개, 2002);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정치』(서울: 경인문화사, 2006);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한울, 2010).

3)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서문당, 1991), 19~133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Paik, Hak 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

는 군대의 창설 주체와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창설 주체에 대한 연구는 소련주도설, 김일성주도설, 양자협의설로 요약할 수 있다.<sup>4)</sup> 당·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당의 군대,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 등 군대의 성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5)</sup> 선행연구는 인민군 창설과정과 그 특징을 해명했지만, 다음과 같은 주제는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인민군의 창설 과정을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과 연관해서 분석하기보다 창군 과정 자체에 집중하였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이후에 새로운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당과 군대를 창설하였다. 따라서 인민군의 성격은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군대 창설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해명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는 북한의 군대와

---

1950(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chapters 6;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4), 33~6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25~309쪽.

- 4)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엮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3~53쪽;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45~471쪽;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중소연구』, 제28권 3호(2004), 215~235쪽;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271~279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군사』(서울: 경인문화사, 2006), 7~84쪽;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2012), 146~202쪽;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2017), 99~137쪽; 김선호,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현대북한연구』, 제21권 2호(2018), 7~47쪽.

동유럽 국가의 군대가 창군과정에서 갖는 차이를 비교하지 못했다. 북한과 동유럽은 공통적으로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sup>6)</sup>을 추구했으며, 빨치산부대가 군대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과 동유럽의 군대는 역사적 기원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이 글은 인민군의 창군 과정을 동유럽의 창군 과정과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북한체제 형성 과정의 일단을 해명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선인민군총사령부(朝鮮人民軍總司令部)의 조직 체계와, 간부들의 이름과 경력을 부분적으로 해명하였다. 총사령부의 조직체계와 간부는 지금까지 통신부·공병부·작전부 등 3개 부서와 참모장·부총참모장 등 9명의 간부만 알려져 있다.<sup>7)</sup> 또한 선행연구는 총사령부 간부의 일제시기 경력과 정치적 출신을 확인해서 분석하지 못했다.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는 국가의 지도체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사령부 간부의 인적 구성과 정치적 출신을 밝힘으로써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를 분석하고, 정치세력 분포와 지도체제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는 주로 당 내부의 정치세력 분포를 통해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를 설명하였다.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당·정권 기관·군대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도체제는 당과 정권기관뿐만 아니

---

6) 인민민주주의혁명은 1946~1947년에 동유럽에서 정립된 개념이며,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민정권은 부르주아독재정권이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아닌 제3형태의 권력이며, 정권에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 도입된 인민민주주의 개념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김재웅,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6~29쪽.

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87~88쪽.

라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를 함께 분석했을 때 비로소 해명될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1948년 2월에 인민군을 창설하였고, 3월에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全黨大會)를 개최해서 지도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당과 군대는 6·25전쟁 이후에 김일성을 수령(首領)으로 하는 유일지도체제<sup>8)</sup>가 출현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글은 당과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를 상호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유일지도체제의 역사적 기원을 추론해 볼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미군노획문서(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와 주한미군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자료는 민족보위성의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1949년에 출판된 김일성의 연설집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정보참모부(USAFIK, G-2)에서 생산한 정보보고서 *G-2 Weekly Summary* 등이다.

## 2.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김일성의 군대

### 1)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유일군대

연합국은 1946년 3월부터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했지만,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에

---

8) 이 글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는 북한의 권력이 김일성에게 집중되고, 그가 최고지도자로 확립되며, 그의 지도행위와 지도사상이 북한 내부에서 전일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체제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일지도체제의 이론적 기반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혁명적 수령관’이며, 실천적 기반은 일인절대권력체제이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100~102쪽.

최종 결렬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무산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UN)에 상정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반면에 소련은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을 반대했다. 유엔주재 소련대표단은 1947년 10월 29일에 개최된 유엔 본회의에서 1948년 초에 미군과 소련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 임시정부 수립문제를 한국인에게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sup>9)</sup> 소련은 10월에 타스통신(TACC)을 통해 양군(兩軍) 철수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고, 이 사실은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 전역에 알려졌다.<sup>10)</sup>

북한에서는 1947년 10월 29일에 각 도의 소련군 위수사령관과 각 군의 소련군 책임자들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이었다. 민정사령관 레베데프(Н. Г. Лебедев)는 회의에서 각 도 위수사령관과 각 군 책임자들에게 기존 업무를 인민군 간부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sup>11)</sup> 소련은 미·소 합의가 결렬되자 대외적으로는 미·소 양군의 철수와 조선인들의 독자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련군의 철수에 대비해 인민군의 간부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는 사업을 강화했다.

미국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을 전후해서 소련이 한반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일 수 있

9) “해방 이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9), 709~712쪽. 『북한관계사료집』은 다음부터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10) “따쓰의 보도,” 『로동신문』, 1948년 5월 30일.

11) 전현수 옮김,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37쪽.

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 해결책은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과 주한미군의 철수였다. 미국은 1947년 8월 26일에 한국문제를 바로 유엔에 상정하였으며, 한국문제 상정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시한을 1948년 3/4분기로 정하되, 소련의 행동 여부와 인민군의 조직 전망 등에 따라 최종 철군 시점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철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군대의 창설과 대한군사원조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sup>12)</sup>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북한정치세력은 국가건설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통일전선에 기초해 “통일적 중앙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 18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제정기구를 조직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sup>13)</sup>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는 12월 20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선임시헌법초안”을 통과시켰다.<sup>14)</sup>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은 194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1948년도의 목표를 새로운 헌법의 제정과 신헌법에 입각한 단일국가 건설이라고 천명하였다.<sup>15)</sup>

그런데 단일국가 건설의 가장 큰 변수는 1947년 10월에 제기된 미·소 양군의 철수문제였다. 북한 주둔 소련군은 남과 북의 무장력에 균형을 보장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그 성과를 보위한 결정적 무력이었다. 그러나 소련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의 무력은 남한에 비

12)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0~73쪽.

13)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차 북조선인민회의 회의록』(평양: 조선인민출판사, 1948), 117~120; 149~151쪽.

14) “해방 이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북한관계사료집』, 7권, 716쪽.

15) 김일성, “1948년도의 신년사”(1948.1.1),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1~4쪽.

해 압도적 열세로 전환되며, 혁명과 그 성과를 보위할 수도 없었다. 소련군의 철수에 대응하고 단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북한정치세력은 정규군의 창설을 단일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우리조국이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무력이 필요”하며,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군대가 없는 독립국가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sup>16)</sup> 이 같은 정세인식 아래, 북한정치세력은 정규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규군의 창설은 모스크바지도부와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면밀히 준비되었다. 북·소 양측의 협의 결과, 창설 열병식의 환영사는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 북조선인민회의에서 김두봉 등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답사는 총사령관 최용건이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sup>17)</sup> 북한의 정규군인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은 1948년 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이 인민군을 2월 8일에 창설한 이유는 이날이 북조선인민위원회 창립 제2주년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sup>18)</sup> 북한정치세력은 국가건설론의 일차적 목표인 인민정권을 창설한 제2주년에 맞추어 인민군을 창설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하는 열병식은 평양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sup>19)</sup>

16)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1):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목적 및 과업에 대하여』(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4쪽,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01.

17) 전현수 옮김, 『레베제프일기』, 47~48쪽.

18) 김일, “조선인민군 창건 2주년에 제하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3호(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2.1), 1쪽.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은 다음부터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19) 김일성,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진술한 연설”(1948.2.8),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73쪽.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조선인민군’이라는 명칭은 1948년 2월 당시에 북한정치세력의 한반도에 대한 정세 인식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당시 북한에 조직된 지도적 정당의 명칭은 북조선로동당이었고, 정권기관의 명칭은 북조선인민위원회였다. 또한 통일전선체의 명칭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었고, 사회단체의 명칭도 북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등이었다. 1948년 2월 당시에 북조선로동당은 북한지역의 근로인민만을 대표하는 정당이었고, 정권기관도 북한지역만을 관할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단체도 북한지역의 계급과 계층만을 대표하였다. 인민군 창설 당시에 북한의 모든 기구 명칭에는 ‘북(北)’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다. 그러나 군대의 명칭만 ‘북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유일하게 ‘조선인민군’이라고 명명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이 당·정권기관·통일전선체·사회단체의 명칭에서 ‘북’ 자를 빼지 않은 것은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남한에도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지역에는 북조선로동당에 상응하는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상응하는 남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북한정치세력은 남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과 남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남한지역의 사회단체가 이미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되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지역의 사회단체 명칭에서 ‘북’ 자를 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미·소의 분할점령에 따른 남과 북의 분리를 현실적 조건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에 설립된 각 기구의 활동·관할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기구의 독자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었다. 둘째, 향후 한반도에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했을 때, 친북·친소 세력의 규모를 일시에 두 배로

확장하려는 의도였다. 이와 달리 북한정치세력이 인민군의 명칭에 ‘북’ 자를 제외한 것은 이 군대가 북한지역에 한정해 창설된 군대가 아니라,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민족 전체를 대표해 창설된 군대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인민군은 향후 수립될 단일정부의 유일군(唯一軍)으로 창설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창설의 가장 큰 특징은 당·정권기관·통일전선체·사회단체와 달리, 인민군이 해방 이후부터 1948년까지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조직된 최초의 기구였다는 점이다. 다른 기구는 모두 향후에 단일정부의 수립을 염두에 두고 북한지역에 한정해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북한지역에 국한된 군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보위하고 혁명의 추진을 보장하며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민족군대로 창설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한반도 차원의 단일정부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출현하였다. 한반도 차원의 유일당(唯一黨)은 1949년 6월 30일에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당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출현하였다.<sup>20)</sup> 또한 한반도 차원의 단일한 통일전선체는 1949년 6월 25일에 남·북의 71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704명이 모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출현하였다.<sup>21)</sup> 조선인민군은 한반도 차원의 유일성과 통일성의 측면에서 정권기관보다 7개월, 유일당과 단일한 통일전선체보다 1년 4개월 앞서 창설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단일정부의 정규군으로 인민군을 먼저 창설하고,

---

20) 김일성, “남북조선로동당을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할 데 대하여”(1949.6.30), 『김일성저작집』, 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22쪽.

2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자료,” 『북한관계사료집』, 6권, 311~313쪽.

이 무력적 기반을 토대로 단일정부, 단일한 통일전선, 한반도의 유일당을 건설하려고 구상했던 것이다. 1948년에 들어서 북한정치세력의 국가건설노선은 ① 유일군의 창설, ② 단일정부의 수립, ③ 한반도의 단일한 통일전선과 유일당의 창설, ④ 국토완정을 통한 완전한 한반도 단일정부의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유일적 성격의 인민군은 향후 수립될 통일적 정부·노동당의 기반이자 모델이었다. 북조선로동당이 북한지역의 유일당이였다면, 조선인민군은 한반도의 유일군이였다.

이 같은 조선인민군의 유일적 성격은 조선인민군 창설 열병식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김일성은 축하연설문에서 인민군의 창설목적에 대해 “조선인민군대를 창설하여 불원(不遠)에 건설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대의 튼튼한 기초를 닦음으로써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촉진시킬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인민군의 성격에 대해 “로동자·농민 근로인민의 아들·딸로써 조직된 군대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는 “해내·해외에서 수에 넘치는 일제의 군대를 상대로 장구한 유혈의 투쟁을 계속해 온 애국자·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설된 장구한 혁명전통과 투쟁경험과 애국정신으로 빛나는 역사적 군대”라고 주장하였다.<sup>22)</sup>

## 2) 인민군의 ‘혁명전통’과 김일성의 군대

김일성이 언명한 인민군의 골간에는 만주(滿洲)와 소련에서 활동한 동북항일연군뿐만 아니라, 중국 연안(延安)에서 활동한 조선의용군과

---

22) 김일성,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진술한 연설”(1948.2.8),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73~85쪽.

국내공산주의자들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기원은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있다고 천명되었다. 항일연군 출신 김일은 “우리 인민군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아래서 우리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여 민족적 영예를 고수하여온 김일성장군의 항일 유격대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과 고상한 애국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경험을 계승”했다고 설명하였다.<sup>23)</sup> 또한 조선의용군 출신 김웅(金雄)도 조선인민군의 정체성에 대해 “김일성장군의 영웅적 빨찌산의 산아로서의 자기의 혁명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고려인 리춘백은 “김일성장군의 말씀을 우리인민군대의 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5)</sup>

정규군의 역사적 기원을 빨찌산부대에 두고, 군대의 골간을 빨찌산부대의 지도자로 설정하는 것은 북한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새로운 정권 앞에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할 과업이 있었다. 인민정권 강화의 중요한 조건은 새로운 군대를 창건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새로운 군대의 골격은 빨찌산부대”였고, “새로운 지휘간부들은 빨찌산부대들과 기타 반파시스트투쟁에서의 공훈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주로 선발되었다.<sup>26)</sup>

또한 빨찌산부대의 지도자에게 혁명운동의 정통성을 부여한 국가는

23) 김일, “조선인민군 창건 2주년에 제하여,”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3호, 7쪽.

24) 김웅, “조선인민군은 공화국의 견고한 성벽이다,”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3호, 29쪽.

25) 리춘백, “혁명적 경각성 제고는 승리의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3호, 120쪽.

26) 느·파르베로브,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적 및 국가적 구조,”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근로자』, 제12호(평양: 로동신문사, 1949.6.30), 86쪽.

동유럽에도 있었다. 바로 빨치산 지도자 티토(Josip Broz Tito)가 수상을 맡은 유고슬라비아다. 해방 전에 유고슬라비아에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부대인 자유유고슬라비아군단(체트니크(Chetnik))과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부대가 있었다. 그러나 1943년 이후에 티토의 대독항쟁이 연합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빨치산부대가 반파시즘운동의 유일한 합법단체로 인정받았다.<sup>27)</sup>

티토는 해방 직후에 연합국의 제의에 따라 왕정(王政)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1945년 11월에 왕정 폐지를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연방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는 초대 수상을 맡으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유고슬라비아인들은 자국의 해방이 자력에 의한 것이며, 소련군 등 연합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수립 이후에 티토와 스탈린(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은 발칸연방(Balkan Federation) 수립 등 민족주의문제, 부농(富農)에 대한 통일전선문제, 소련군사·기술고문단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결국 스탈린은 1948년에 티토가 사회주의 연합전선에서 이탈했다고 선언하고, 6월 28일에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을 코민포름(Cominform)<sup>28)</sup>에서 추방시켰다.<sup>29)</sup>

27) 이숙자,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적 형성과 정치구조,” 김달중 엮음, 『헝가리·유고슬라비아』(서울: 범문사, 1988), 151~154, 161~162쪽; 재스퍼 리들리(Jasper Ridley), 『티토: 위대한 지도자의 초상』, 유경찬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3), 330~331쪽.

28) 코민포름은 1947년 9월에 소련,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사회주의국가와 프랑공산당·이탈리아공산당을 회원으로 창설되었다. 그 기능은 각국 공산당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김달중 엮음, 위의 책, 161쪽.

29) 김달중 엮음, 위의 책, 155, 161~162쪽; 재스퍼 리들리, 『티토』, 318, 340~341, 366쪽.

유고슬라비아와 북한의 차이점은 해방에 대한 기여도와 소련군·스탈린에 대한 평가에 있었다. 티토는 유고슬라비아 빨치산부대의 단일한 지도자였지만, 김일성은 여러 빨치산부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또한 티토는 자신의 빨치산부대를 지휘해서 나찌를 축출했지만, 김일성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대일전에 참전하지 못했다. 나아가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군의 ‘해방자’적 역할을 부정하고 자력으로 조국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소련군을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은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티토, 스탈린, 디미트로프”<sup>30)</sup>가 연호된 반면, 북한에서는 스탈린이 “당당한 레닌의 위업의 후계자이며 금일의 레닌”으로 평가되었고, 김일성은 언제나 자신보다 앞서 “쓰탈린대원수 만세”를 선창하였다.<sup>31)</sup>

그러나 양국의 공통점도 있었다. 유고슬라비아가 “민족주의적 립장으로 전환”하고 “민족주의의 길”로 나아갔듯,<sup>32)</sup> 북한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었다. 김일성은 공개연설에서 늘 ‘민족’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는 인민군 창설식에서 사회개혁을 “장구한 민족적 숙망”, 인민경제계획을 “민족자립경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민족적

---

30) 게오르기 디미트로프(Г. М. Димитров)는 코민테른 서기장 출신으로, 1946년 11월에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초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디미트로프가 연호된 것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티토와 함께 발칸연방 수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G. M. 디미트로프, 『통일전선연구』, 김대건 편역(서울: 거름, 1987), 396~398쪽; 이정희, 『동유럽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483쪽.

31) 이정희, 위의 책, 483쪽; 재스퍼 리들리, 『티토』, 341쪽; “쓰탈린대원수의 간단한 약사,”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8호(평양: 민족보위성 문화출판국, 1949. 12.15), 55쪽;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73~85쪽.

32) “수개 공산당 보도국회의에 관한 커뮤니케,” 『근로자』, 1948년 7월호, 『북한관계사료집』, 45권, 456~457쪽.

과업”라고 주장했으며, 인민군 창설에 대해 “조선민족의 력사상에 처음으로 인민자신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33)</sup>

유고슬라비아와 북한은 동일하게 빨치산부대의 지도자에게 혁명운동의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가 남슬라브족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옛 슬라브족의 역사적 저항운동을 강조했음에 비해,<sup>34)</sup> 북한은 민족을 근대의 산물로 간주하는 스탈린의 민족이론을 수용하였다.<sup>35)</sup> 또한 티토는 발칸지역에서 소련에 앞서 불가리아·루마니아와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불가리아와 함께 발칸연방을 구상했으며, 민족주의문제·통일전선문제·소련공문단문제로 스탈린과 충돌했다.<sup>36)</sup> 이에 비해 김일성은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스탈린의 영도를 받아들였고 스탈린의 노선에 충실했다.<sup>37)</sup>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1946년 2월부터 당원들에게 “레

---

33) 김일성,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진술한 연설”(1948.2.8),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73~76쪽.

34) 해방 직후 유고슬라비아의 국가적 정체성은 슬라브족의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국가(國歌)는 옛 슬라브족의 민요를 바탕으로 선조들의 외세에 대한 저항운동정신을 길이 이어받자는 내용이었다. 김달중 엮음, 『헝가리·유고슬라비아』, 227~228쪽.

35) 해방 직후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정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현실』, 제44호(2002), 258~261쪽.

36) 김달중 엮음, 『헝가리·유고슬라비아』, 224~226쪽; 이정희, 『동유럽사』, 400, 483쪽.

37) 유고슬라비아가 코민포름에서 제명되자, 북한은 티토와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을 ‘파시스트’이자 ‘제국주의의 돌격대’라고 대대적으로 비난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프로쓰끼스트들은 제국주의의 돌격대이다,” 『근로자』, 제13호(1949.7.15), 『북한관계사료집』, 50권, 408~419쪽; 송관철, “파씨스트적 지도당은 유고슬라비아인민을 노예화한다,” 『인민』, 1950년 1월호, 『북한관계사료집』, 39권, 642~657쪽.

닌·쓰딸린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을 전개해 왔다.<sup>38)</sup> 스탈린주의는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사상적 지침 중 하나였다.

인민군이 창군 이념을 김일성의 빨치산부대에 둔 것은 다른 인민민주주의국가의 군대와 유사했다. 그러나 인민군이 일반적인 인민민주주의국가의 군대와 다른 점은 군대의 역사적 기원과 정통성을 반제투쟁을 펼친 빨치산부대 일반이 아니라 김일성이 활동한 빨치산부대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정치세력은 “인민군 창설에 대한 김일성장군의 고려는 벌써 과거 만주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던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들은 인민군의 역사적 기원을 김일성이 만주에서 1932년에 조직한 “조선인민혁명군”과 1935년에 조직한 “조선인조국광복회”의 강령에 두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김일성을 “조선인민군의 조직자이시며 지도자”라고 선전하였다.<sup>39)</sup>

북한정치세력이 언급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인조국광복회”는 1936년에 코민테른(Comintern) 주재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결정에 의해 만주에서 승인된 “한국민족혁명군(韓國民族革命軍)”과 민족통일전선 조직인 “조국광복회(祖國光復會)”를 뜻하는 것이다.<sup>40)</sup> 인민군은 이 민족군대와 조국광복회가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고,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민군이 자체의 역사적 기원을 김일성의 “민족해방투쟁”과 김일성부대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군대는 이미 북조선임시

---

38) “목전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관한 결정서”(1946.2.15), 『북한관계사료집』, 1권, 32쪽.

39)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1)』, 8쪽.

40) “中共吉東省委致饒河中心縣委及四軍四團的信(节选)-關於建立韓國民族自治區的問題”(1936.3.12),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東滿地區革命歷史文獻匯編』, 下冊(延吉: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1999), p.1453.



인민위원회 보안국 시기부터 김일성 영도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 후 김일성의 영도사상은 항일연군 출신의 총사령관·문화부사령관에 의해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관철되었다. 그 결과 인민군의 창군이념은 다른 조선민족운동세력의 항일운동과 조선의용군·한국광복군 등의 군사활동이 부정된 채,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항일유격대로 단일화되었다.

인민군이 창설됨에 따라 북한정치세력의 제2단계 창군과정은 종결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제1단계 창군과정에서 군대를 보안기구에서 독립시켰고, 군사지휘기관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보병부대와 군사간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제2단계 창군과정은 1947년 5월 17일에 집단군 총사령부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정규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군사지휘기관을 확장했고, 2개 보병사단과 1개 보병여단을 확편하였다. 그리고 보병부대를 넘어서 항공부대와 탱크부대 등 병종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창군 과정을 거쳐 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 3. 조선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와 유일지도체제

#### 1) 조선인민군총사령부의 조직과 간부

북한의 창군과정은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됨에 따라 완결되었다. 인민군이 창설되자,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는 “조선인민군총사령부(朝鮮人民軍總司令部)”로 개편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의 조선항공대는 인민군총사령부 항공대대로 증편

되었고,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평양학원, 중앙병원, 경위연대는 인민군총사령부에 직속되었다.<sup>41)</sup> 총사령부는 평양시에 있는 “구 일본군 제44부대 자리”에 설치되었다.<sup>42)</sup> 인민군총사령부는 참모부, 문화부, 포병부, 후방부, 정치보위부, 군사최고검찰소, 군사최고재판소로 구성되었다. 참모부는 작전과, 정찰과, 통신과, 간부과, 공병과, 총무과, 기요과로 편성되었다. 문화부는 8개 과로, 후방부는 9개 과로 구성되었다. 포병부는 2부 9과로 구성되었는데, 2부는 간부부와 포병공급부였다.<sup>43)</sup>

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들은 1946년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 시기부터 근무했던 간부와 새로 임명된 간부가 있다. 간부들의 경력은 새로 임명된 인물들에 한정해 살펴보겠다. 먼저 인민군총사령관은 최용건(崔庸健)이 맡았다. 다음으로 문화부사령관은 김일(金一), 포병부사령관은 무정(武亭), 후방부사령관은 최홍극(崔弘極), 총참모장은 강건(姜健), 통신부장은 박영순(朴英順), 공병부장은 박길남(朴吉南)이 맡았다.<sup>44)</sup> 총사령관 최용건은 대대부 시기부터 총사령관을 맡아왔다. 특히 그는 조선민주당 위원장으로, 북조선인민회의 서기장 강량욱(康良煜)과 함께 노동당의 외부에서 북한정부의 수립을 주도하였다.<sup>45)</sup> 총참모장은 강건은 1947년 12월부터 집단군총사령부에서 참

41)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87쪽.

42)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서울: 병학사, 1977), 31쪽.

4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역음,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3권(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344~346쪽.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은 다음부터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4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87~88쪽.

45)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金科奉이 맡고 있었다. “北朝鮮人民會議 特別會議會議錄”(1948.4.28), 『북한관계사료집』, 8권, 220쪽.

모장을 맡아왔다.<sup>46)</sup>

포병부 간부부장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심태산(沈泰山)이다. 그는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까지 평양학원 군사부원장으로 근무했다. 포병부 포병공급부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노정섭(盧正燮)이었고, 포병부 정보과장은 항일연군 출신 김성국(金成國)이었다.<sup>47)</sup> 문화부장은 고려인 김일(金日)이었다. 그는 1947년부터 군대 내의 문화부사업을 전담했다.<sup>48)</sup> 문화부 구락부장 겸 인민군협주단장은 의용군 출신 정률성(鄭律成)이다.<sup>49)</sup>

후방부 조직계획과 부과장은 최홍선이다. 그는 일제시기에 목단강의 특무기관(特務機關)<sup>50)</sup>에서 활동했다. 후방부 수의과장은 장석호이며, 그는 평북 의주농업중학교와 장춘(長春)의 대동학원(大同學院)을 졸업하고 만주국(滿洲國) 관리로 근무했다. 수의과 부과장은 함인복으로, 평북 의주농업중학교를 졸업하고, 평북 희천군 농업협회에서 기술자로 근무했다. 후방부 군의과장은 리동영으로 알려져 있는데,<sup>51)</sup> 정확한 이름은 리동화(李東華, 리바실리 페도로비치)다. 그는 고려인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 보건국 부국장을 역임했다.<sup>52)</sup> 후방부 자동차관리과장은 만주 출신 김학도다. 군사최고검찰소장은 한철이며, 군사최고재판소

4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6쪽.

47) HQ, USAFIK, 위의 책, 349쪽.

48)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98-99쪽.

49)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서울: 형상사, 1992), 227쪽.

50)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 “Tokumu Kikan”에서 근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용어는 특무기관(特務機關)의 일본어 발음(とくむきかん)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 348쪽.

51) HQ, USAFIK, 위의 책, 348쪽.

5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80, 191쪽.

장은 조광렬이다. 최고재판소에는 3명의 판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김광수였다.<sup>53)</sup>

총참모부 작전부장은 고려인 황호림(黃虎林)이었다. 작전부 체육훈련계장은 고려인 전학준(全學俊)이며, 제25군 통역으로 활동하다가 부임했다. 경찰부장도 고려인인데, 제25군 통역으로 근무하다가 1948년 1월에 부임했다. 경찰부 부부장은 홍세혁이다. 그는 중국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이며, 지방에서 보안서장으로 근무했다. 통신부장은 항일연군 출신 박영순이며, 통신부 통신부대장은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 리기훈이었다.<sup>54)</sup> 경찰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대대부와 집단군총사령부의 경찰부장은 고려인 최원(崔遠)이 맡았다. 또한 최원은 민족보위성에서도 경찰부장을 맡았다.<sup>55)</sup> 인민군은 주요부서의 경우, 간부책임제에 따라 간부를 연임시켰으므로 인민군총사령부 경찰부장도 최원이었을 것이다.

총참모부 대열부장은 “문중빈(Moon Chong Bin)”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열부 부부장은 조선의용군 압록강지대 출신 왕성홍이다. 공병부장은 고려인 박길남이고, 공병부 부부장은 평양학원 제1기생 김선옥(金善玉)이다. 총참모부 총무부장은 평양의 지주 아들인 우진우였다.<sup>56)</sup> 대열부장 “문중빈”의 정확한 이름은 문종목(文宗穆)이다. 그는 대대부 시기부터 대열부장을 맡아왔다.<sup>57)</sup> 문화부 체육부장은 고려인 천이완(천이반 알렉산드로비치)이다. 그는 1947년 3월 7일부터 대대부와 집단

---

5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8, 350쪽.

54) HQ, USAFIK, 위의 책, 347~348쪽.

55)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91쪽.

5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8쪽.

57) 최태환 구술, 박해강 집필, 『젊은 혁명가의 초상』(서울: 공동체, 1989), 45쪽.

< 표 1 > 조선인민군총사령부의 조직과 간부

상부부서	하부부서	간부
총사령부		총사령관 최용건[행]
총참모부	지휘부	총참모장 강건[행]
	작전부	작전부장 황호림[고], 체육훈련계장 전학준[고]
	정찰부	정찰부장 최원[고], 정찰부 부부장 홍세혁[의]
	통신부	통신부장 박영순[행], 통신부대장 리기훈[보간]
	대열부	대열부장 문종득[국], 대열부 부부장 왕성홍[의]
	공병부	공병부장 박길남[고], 공병부 부부장 김선욱[평양]
	총무부	총무부장 우진우[국]
문화부	문화간부와·선전과·조직과·인쇄과·총무과·구락부·협주단·신문사	문화부사령관 김일(金一)[행], 문화부장 김일(金日)[고], 구락부장 정률생[의], 체육부장 천이원[고], 신문과장 한희국
포병부	간부부: 작전과·정찰과·통신과·사병인사과·군관인사과·대공과 포병공급부: 무기수리과·탄약과·무기연구소	포병부사령관 무정[의], 간부부장 심태산[행], 포병공급부장 노정섭[의], 정보과장 김성국[행]
후방부	후방간부와·조직계획과·수의과·군의과·식량과·의복과·재정과·주택과·자동차관리과	후방부사령관 최홍국[고], 조직계획과장 미상(중좌), 조직계획과 부과장 최홍선[일특], 수의과장 장석호[만주], 수의과 부과장 함인복[국], 군의과장 리동화[고], 자동차관리과장 김학도
정치보위부	정보소대	정치보위부장(중좌), 정보소대장 등 군관 7명
최고검찰소		최고검찰소장 한철, 군관 6명과 서기참모 1명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장 조광렬, 김광 등 판사 3명, 군관 1명, 서기참모 1명

주: [ ] 안은 간부들이 속해 있는 정치세력을 표시한 것이다. [행]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의]는 조선의용군 출신, [고]는 고려인, [국]은 국내공산주의자, [보간]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 [평양]은 평양 학원 졸업생, [일특]은 일본 특무기관 출신, [만주]는 만주국 관리 출신을 뜻한다.

자료: 이 표는 위에서 확인한 자료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종합해 작성했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4~346쪽.

군총사령부에서 체육부장을 맡아왔다.<sup>58)</sup> 문화부 신문과장은 “전 투사 신문사 주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북조선기자동맹 부위원장과 『투사신문』 책임주필을 맡았던 한효다.<sup>59)</sup>

이상에서 확인한 인민군총사령부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를 통해 확인된 부서는 12개 부, 26개 과(구락부·협주단·신문사·연구소 포함), 2개 소로, 총 40개이며, 확인된 간부는 31명이다. 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는 주로 항일연군 출신, 의용군 출신, 고려인, 국내공산주의자였다. 항일연군 출신은 총사령관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문화부사령관 김일 등 6명이며, 의용군 출신은 포병부사령관 무정, 구락부장 정률성, 경찰부 부부장 홍세혁 등 5명이었다. 고려인은 후방부사령관 최홍극, 작전부장 황호림, 문화부장 김일(金日) 등 8명이며, 국내공산주의자는 대열부장 문종목이었다. 이들 중에 작전부장 황호림은 1948년 초에 “불량분자”로 판단되어 소련 끌호즈로 귀국 조치되었다.<sup>60)</sup>

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구성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집단군총사령부에 있던 직책에는 그 직책을 맡았던 간부가 그대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총사령관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문화부사령관 김일, 포병부사령관 무정, 후방부사령관 최홍극 등 10명이다.<sup>61)</sup> 이와 달리 인민군총사령부 시기에 새로 영입된 간부는 최고급

58)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672쪽.

5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9쪽. 『투사신문』의 책임주필은 한효였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224쪽.

60) 주영복, “방향5: 중립국행자원한 반공포로의 수기”, 『동아일보』, 1962년 7월 7일.

61)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구성은 다음을 참고 바람. 김선호, “북한의 통일전선 변화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정신문화연구』, 제

찰소장 한철, 포병부 간부부장 심태산, 총참모부 총무부장 우진우 등 16명이다. 인민군총사령부에 들어와서 신규간부가 기존 간부의 규모를 넘어섰다.

인민군총사령부 간부구성의 두 번째 특징은 집단군총사령부 시기에 정착된 각 정치세력의 역할분담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항일연군 출신은 6명으로, 총사령관, 총참모장, 문화부사령관, 통신부장, 포병부 간부부장·정보과장을 맡았다. 의용군 출신은 5명으로, 포병부사령관, 구락부장, 정찰부·대열부 부부장, 포병공급부장을 맡았다. 고려인은 8명으로, 후방부사령관, 작전부장, 문화부장, 정찰부장, 공병부장, 군의과장, 체육부장, 체육훈련계장을 맡았다. 국내공산주의자는 문종목이 유일하게 대열부장을 맡았다.

항일연군 출신은 인민군의 지휘권, 정치사상사업·통신부문 책임자, 포병부문 인사권·정보부문을 담당했다. 의용군 출신은 포병·구락부문 책임자, 정찰·대열부문 부책임자, 포병군수부문을 담당했다. 고려인은 후방·작전·정찰·공병·군의부문 책임자, 문화부문 부책임자, 체육부문을 담당했다. 국내 공산주의자는 총무부문 책임자를 맡았다. 집단군총사령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항일연군 출신이 포병부문의 인사권·정보부문을 새로 맡았으며, 의용군 출신이 새로 정찰·대열부문의 부책임자와 포병군수부문을 맡았다. 고려인은 새로 정치사상사업 부책임자와 군의·체육훈련부문을 맡았다.

간부구성의 세 번째 특징은 항일연군 출신과 고려인에 비해 의용군 출신과 기타 경력자들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의용군 출신은 총사령부의 상급간부 외에도 총사령부의 하급간부로도 충원되었다.

---

153호(2018), 314~317쪽.

총참모부 총무과에는 송두칠 대위가 새로 배치되었다. 그는 조선의용군 압록강지대 출신으로, 입북 이후에 ‘조선의용군 의주학원’에서 중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sup>62)</sup>

총사령부에는 새로운 경력자들도 간부로 충원되었다. 총참모부 총무과장 우진우는 지주계급 출신이었고, 후방부 조직계획과 부과장 최홍선은 일본 특무기관 출신이었다. 수의과장 장석호는 만주국 관리 출신이고, 수의과 부과장 함인복은 의주농업학교를 졸업한 사무원이었다. 문화부 신문과장 한효는 언론인 출신이었다. 집단군총사령부에 비해 인민군총사령부는 그 조직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신규 간부가 필요했다. 인민군은 기존의 정치세력 이외에 지주계급·친일파·사무원·언론인 등 다양한 경력자들을 총사령부 간부로 충원했다. 물론 이들은 북조선로동당에서 사상심사를 받았을 것이다. 다만, 일본 특무였던 최홍선 같은 인물은 아직 친일 경력이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민군총사령부에도 집단군총사령부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에 군사부문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간부로 임명되었다. 대표적으로 통신부 통신부대장 리기훈은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총사령부에 배치되었다. 아울러 총사령부에는 평양학원 졸업생들도 배치되었다. 총참모부 총무과 러시아어통역은 총사령관 최용건의 조카로, 평양학원을 졸업했다. 후방부 러시아어통역 서광용 대위는 학도병 출신으로 그 역시 평양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문화부에 새로 배치된 강제필 소좌는 일본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을 졸업한 지식인으로 평양학원 러시아어반을 졸업했다.<sup>63)</sup> 총사령부 간부 중에는 경력이 확인되지 않

---

6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7쪽.



는 인물이 많은데, 이들 외에도 군사부문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2) 인민군의 정치세력과 유일지도체제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각 정치세력은 단일정부의 정규군을 육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용군 출신은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하기 위해 암암리에 뭉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북군정대학(東北軍政大學) 졸업생들은 인민군총사령부와 내무성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들은 포병부사령관 무정을 “우리들의 기둥”이라고 인식하고, 그의 신임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인민군총사령부에서 근무한 동북군정대학 졸업생 최태환은 “파벌의식”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확대되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sup>64)</sup> 최태환은 시종일관 파벌의식이 대외적 갈등관계로 표출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회고한 반면, 이 시기에 김일성이 독점적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정치세력을 숙청하거나 탄압했다는 증언도 많다.<sup>65)</sup>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각 정치세력이 인민군총사령부 시기에 군대에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의용군 출신은 인민군이 창설된 이후에도 분열되어 있

---

6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347~349쪽.

64)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64~67쪽.

65)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한 인물들은 주로 북한의 정치투쟁과정에서 소련·중국으로 망명하거나 월남한 사람들이다.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서울: 내외문화사, 1965); 임은, 『북한 김일성왕조비사』(서울: 한국양서, 1982); 고봉기, 『조선노동당원의 육필수기』(서울: 시민사회, 1990).

었다. 대표적으로 황해도당위원장 박훈일(朴勳一)은 1948년 3월 27~30일에 개최된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무정을 비판하였다. 그는 1946년 3월의 토지개혁 당시 황해도에서 좌경적·우경적 오류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그 당시 토지개혁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무정 동무와 당시 도당위원장이던 최경덕 동무가 저야” 한다고 비판하였다.<sup>66)</sup> 박훈일은 신사군(新四軍)에서 적구공작과(敵區工作課) 과장을 역임했고, 만주에서 조선의용군 제7지대장으로 활동했다.<sup>67)</sup> 그러므로 반(反) 무정세력인 조선의용군의 북상파(北上派)와는 거리가 멀고, 무정과 가까운 인물이다.<sup>6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훈일은 공개석상에서 무정에게 당적 책임을 묻고 있다. 1948년 3월 시점에 무정은 더 이상 조선의용군의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고,<sup>69)</sup> 조선의용군 출신은 각각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다.

군사간부들은 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된 이후에 북조선로동당에서 고위급 당간부로 임명되었다. 노동당은 1948년 3월에 개최한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지도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개편은 전쟁 전의 마지막 중앙당 간부개편이었다. 북한정치세력이 1948년 3월에 2차

---

66)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권, 359~360쪽.  
 67)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219~220쪽;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130쪽.  
 68)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의 북상파와 무정세력은 다음을 참고 바람. 김선호,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변화와 중국·소련 관계,” 『정신문화연구』, 제147호(2017), 84~92쪽.  
 69) 무정은 1946년 8월에 개최된 노동당 창립대회 당시 당서열 11위였으나, 1948년 3월에 개최된 제2차 전당대회에서 36위로 급격히 추락하였다.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권, 172, 452~453쪽.

전당대회를 소집한 이유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한반도의 단일국가 수립문제에 대한 당의 노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당면과업으로 미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폭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강화, 전체 인민의 총선거를 통한 조선민주주의정부의 수립,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기초를 공고·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결정하였다.<sup>70)</sup>

제2차 전당대회에서 노동당의 최고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는 김두봉(위원장), 김일성(부위원장), 주녕하(부위원장), 허가이, 김책, 최창익, 박일우로 구성되었다. 기존 정치위원에서 김책과 박일우가 추가되었다. 노동당 상무위원은 15명으로, 항일연군 출신 3명(김일성·김책·김일), 의용군 출신 4명(김두봉·최창익·박일우·진반수), 고려인 4명(허가이·박창욱·김재욱·기석복), 국내공산주의자 2명(주녕하·박정애), 테크노크라트 2명(정준택·정일룡)이었다. 기존 상무위원에서 김교영·김창만·박효삼(의용군), 태성수(고려인), 오기섭(국내공산주의자)이 탈락하였다. 당부서의 책임자로는 조직부장 허가이, 간부부장 진반수, 선전선동부장 박창욱, 노동부장 박영성, 농민부장 리유민, 재정경리부장 김교영이 임명되었다.<sup>71)</sup>

노동당은 전(前) 조선신민당 당수 김두봉이 위원장을 맡고, 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김일성과 전 함남적색노동조합운동 책임자 주녕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고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에는 항

70)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권, 321~323, 462~463쪽.

71) 다음 책에 수록된 중앙위원 명단을 비교해서 종합하였다.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306~307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78~179, 217~219쪽.

일연군 출신(김일성·김책), 의용군 출신(김두봉·최창익·박일우), 고려인(허가이), 국내공산주의자(주녕하)가 고루 망라되었다. 특히 의용군 출신이 7명 중 3명으로 단일 정치세력으로는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항일연군 출신은 당의 실권을 잡지 못했다. 당의 조직부문(허가이)·선전선동부문(박창욱)·노동부문(박영성)은 고려인이 장악하였고, 당의 간부부문(진반수)·재정부문(김교영)·농민부문(리유민)은 의용군 출신이 장악하였다. 이 중에서 조직부문·인사권·재정부문은 당을 내부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핵심부문이었다. 제2차 당대회 이후 노동당의 지도부는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의 실권은 고려인과 의용군 출신이 분점하고 있었다. 북조선로동당은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하지 못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는 총 67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다. 중앙위원 중에서 당서열 10위에 오른 인물과 군사간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총 67명의 중앙위원 중 군사간부는 15명이다.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은 조선민주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명단에 없다. 67명 가운데 1946년 8월의 노동당 창립대회 때부터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은 30명이며, 새로 선출된 인물은 37명이다. 창립대회 당시 중앙위원과 비교해 보면, 항일연군 출신은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고, 의용군 출신은 16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고려인은 8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으며, 국내공산주의자는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2차 당대회에서 고려인들은 당내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sup>72)</sup>

72) 다음 책에 수록된 제1차·제2차 중앙위원 명단을 비교해서 작성하였다(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78~179, 217~219쪽). 서동만은 김광빈을 기타·

<표 2>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 중 군사간부의 당서열(1948.3.30)

서열	이름	직책	서열	이름	직책
1위	김두봉	노동당 위원장 (북조선인위 부위원장)	36위	무 정	인민군총사령부 포병부사령관
2위	김일성	노동당 부위원장 (북조선인위 위원장)	39위	박효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교장
3위	주녕하	노동당 부위원장	46위	김광협	조선인민군 사단장
4위	허가이	노동당 조직부장	50위	림 해	조선인민군 문화부사단장
5위	김 책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장	52위	방학세	내무국 정보처장
6위	최창익	북조선인민위원회 인민검열국장	54위	김 용	조선인민군 사단장
7위	박일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	57위	장 철	내무국 정치보위부 부부장
8위	박징애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59위	리권무	조선인민군 여단장
9위	김교영	노동당 재정부장	60위	김경석	조선인민군 부사단장
10위	정준택	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장	62위	김한중	내무국 당위원회 위원장
12위	김 일	인민군총사령부 문화부사령관	65위	김광빈	해군군관학교 교장
27위	강 건	인민군총사령부 총참모장	군사간부 합계		15명

주: 표에 진하게 표시된 인물들이 군사간부다.

자료: 당서열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권, 452~453쪽). 군사간부의 직책은 다음 연구를 대조해 확인하였다(김평은, 『북한정치사연구』 1, 600~601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942~943쪽).

당 중앙위원인 군사간부를 정치세력별로 구분하면, 항일연군 출신은 김책, 김일, 강건, 김광협, 김경석 등 5명이다. 의용군 출신은 무정, 박효삼, 림해, 김용, 리권무, 김한중 등 6명이다. 고려인은 방학세, 장철, 김광빈 등 3명이다. 제2차 당대회부터 군사간부 가운데 항일연군 출신에서는 총참모장 강건, 사단장 김광협, 부사단장 김경석이 새롭게

불명으로 분류했는데, 그는 고려인이다.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서울: 한울, 2013), 111쪽.

부상하였다. 의용군 출신에서는 사단장 김웅, 내무국 당위원장 김한중, 여단장 리권무가 부상하였다.

군사간부 중 항일연군 출신에서는 김책이 제1인자, 김일이 제2인자였다. 의용군 출신 중에는 박일우가 제1인자로 새롭게 부상했으며, 무정은 제2인자, 박효삼은 제3인자로 물러났다. 김책과 박일우는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을 대표해 각각 민족보위국과 내무국을 담당하였다. <표 2>의 당서열을 보면, 항일연군 출신 군사간부는 다른 정치세력보다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용군 출신 군사간부는 당서열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고려인 군사간부는 당서열의 하위그룹에 편재되어 있었다. 또한 고려인들은 정권기관의 수장이나 부대 지휘관을 맡지 못하고, 군대 안에서 정보부문·간부양성부문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노동당 지도부의 정치세력별 구성과 당중앙위원인 군사간부의 정치세력별 구성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노동당의 지도부는 제2차 당대회 이후에 각 정치세력이 분점하고 있었고, 당의 실권은 고려인과 의용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의 지도자는 김일성이었으나, 항일연군 출신은 지도부 내에서 의용군 출신·고려인의 1/3에 불과했고, 당부서의 책임자도 맡지 못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인 군사간부를 분석해 보면, 항일연군 출신은 의용군 출신에 버금가는 인원이었고, 당서열도 다른 정치세력보다 상위에 있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 지도부에서 숫적 우위나 당의 실권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항일연군 출신 군사간부는 다른 정치세력의 군사간부보다 당적 지위와 군사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항일연군 출신은 6·25전쟁 이전에 노동당이 아니라 인민군에서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항일연군 출신인 조선민주당 위원장 최용건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었

으므로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의 정치적·군사적 우위는 더욱 확고했다.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의 우월적 지위는 김일성 중심의 창군이념과 함께 향후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 기반이었다.

노동당 중앙위원 67명 중 군사간부는 15명으로 단일부문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중앙당 간부로 임명되었다. 군사간부들이 당 중앙위원을 맡으면서 당과 군은 더욱 밀접히 결합되었다. 인민군총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군사간부들은 동시에 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인민군에 관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총사령관 최용건은 노동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원이었다. 그는 노동당과 인민군의 당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노동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제외되었다. 인민군 총사령관이 조선민주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인민군 내부가 다양한 계급과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것은 북한정치세력이 집단군총사령부 시기에 군대 내부의 통일전선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에서 통일전선의 기본적 틀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통일전선은 아직 인민민주주의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정치상황에서 국가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명노선이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이 같은 정세인식에 따라 기존의 정치세력 이외에 지주계급·친일파·사무원·연론인 등 다양한 경력자들을 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통일전선의 외연은 다른 계급과 계층으로 다시 한번 확대되었다.

인민군 창설 이후 통일전선의 특징은 정치연합체제가 유지되고 통일전선의 외연이 확장된 가운데, 항일연군 출신이 인민군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대에서 항일연군 출신의 우위는 1948년이 아니라 이미 194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항일연군 출신은 1946년부터 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무력을 관장하는 보안국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보안국은 다른 행정기관보다 먼저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공식적인 지도사상으로 채택했으며, 조선의 해방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sup>73)</sup> 이와 함께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군대의 총사령관은 최용건이 계속 맡아왔고, 문화부사령관은 김일이 계속 맡아왔다. 즉 항일연군 출신은 군인들의 정치사상을 장악함으로써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창설해 왔다.

김일성은 1948년 2월 인민군 창설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북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는 정권기관과 당의 지도자였지만,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정권기관과 당에서 다른 정치세력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노동당의 지도사상은 1946년부터 김일성의 영도사상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였다.<sup>74)</sup> 김일성은 군대에서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일관되게 군대의 지휘권한과 사상교육권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하였고, 민족운동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부여하였다. 즉 국가체제의 근원을 과거의 혁명운동에서 찾는, 이른바 ‘혁명전통’은 바로 인민군에서 출현하였다.

조선인민군의 ‘혁명전통’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인민군의 혁명전통은 노동당보다 먼저 출현했으며, 다른 정치세력을 제외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

---

73)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활동,” 『군사』, 제82호(2012), 298~299, 303~305쪽.

74) “‘목전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관한 결정서”(1946.2.15), 『북한관계사료집』, 1권, 32쪽.



쟁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다. 또한 인민군의 ‘혁명전통’은 항일연군 출신뿐만 아니라 의용군 출신과 고려인에게도 모두 인정받았다. 결국 김일성은 6·25전쟁 이전에 노동당이 아니라 바로 인민군에서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갔다.

#### 4. 맺음말

북한의 군대는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었는데, 1948년 당시 북한 지역의 모든 기구는 향후 통일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북한지역에 한정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한반도 차원에서 조직되었으며, 단일정부의 유일군으로 창설되었다. 인민군은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국가와 달리, 각 정치세력의 항일운동을 부정하고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총사령부의 간부는 다양한 정치세력, 계급, 계층, 경력자들이 임명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국가건설과정에서 다양한 계급·계층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동력에 포함시키는 통일전선의 원칙을 추구하였고, 이 원칙에 따라 당의 군대가 아니라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통일전선의 군대를 창설하였다. 북한의 군대가 적군(赤軍)이나 홍군(紅軍)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으로 명명된 것은 이 같은 혁명론에 근거한 것이다.

김일성은 인민군 창설 당시에 북한 내부에서 당과 정권기관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당과 정권기관에서 다른 정치세력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당과 정권기관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

었다. 반면에 항일연군 출신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일관되게 군대의 지휘권과 사상교육권한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군대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하였고, 조선인민군 창설 이후에 민족운동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부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혁명전통’은 노동당보다 군대에서 먼저 출현했으며, 군대에 출현한 김일성의 혁명전통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인정받았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전에 당·정권기관이 아니라 인민군에서 유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당과 정권기관의 사상교육권한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보유했지만, 군대의 사상교육권한은 항일연군 출신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군대의 사상교육권한을 활용해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국가체제의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켰다. 이들은 당·정·군 전체가 아니라 군대의 지휘권과 사상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당과 정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결국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군대 장악과 인민군의 ‘혁명전통’은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가 출현할 수 있는 역사적 기원이었다.

■ 접수: 9월 5일 / 수정: 11월 29일 / 채택: 12월 5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_\_\_\_\_, 『김일성저작집』, 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1):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목적 및 과업에 대하여』(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01.

\_\_\_\_\_,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3호(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2.1).

\_\_\_\_\_,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8호(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12.15).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차 북조선인민회의 회의록』(평양: 조선인민출판사, 1948).

#### 2) 기타 자료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근로자』, 제12호(평양: 로동신문사, 1949.6.30).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1·6·7·8·39·45·50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2006).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서울: 한울, 2013).

김달중 엮음, 『헝가리·유고슬라비아』(서울: 범문사, 1988).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명지출판사, 2000).

디미트로프, G. M(G. M. Dimitrov), 『통일전선연구』, 김대건 편역(서울: 거름,

1987).

리들리, 제스퍼(Jasper Ridley), 『티토: 위대한 지도자의 초상』, 유경찬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이정희, 『동유럽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서문당, 1991).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전현수 옮김,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의 작곡가 정률성』①(서울: 형상사, 1992).

최태환 구술, 박해강 집필, 『젊은 혁명가의 초상』(서울: 공동체, 198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3(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中卷(서울: 兵學社, 1977).

## 2) 논문

김선호, “북한의 통일전선 변화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정신문화연구』, 제153호(2018), 301~326쪽.

\_\_\_\_\_, “해방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활동,” 『군사』, 제82호(2012), 179~210쪽.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현실』, 제44호(2002), 256~285쪽.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84쪽.

3) 신문

『동아일보』, 1962년 7월 7일.

3. 국외 자료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東滿地區革命歷史文獻匯編』, 下冊(延吉: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1999).

#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Origin of Kim Il-su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Kim, Seon-ho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The Korean People's Army (KPA) was established on February 8, 1948. At the time in 1948, every governmental structure in the North Korean region was formed in prospect of establishing a unified government. However, one purpose of the Korean People's Army was to install *yuilgun*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for the unified government.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KPA was incongruent to that of the Eastern European People's Democratic states. The KPA denied the anti-Japanese struggles of other political powers, and singularized the legitimacy to that of Kim Il-sung. The general headquarters nominated people of various political backgrounds, class, and stratum to the officer positions. The North Korean political powers also advocated the principle of the 'united front', which included diverse classes and strata to the nation-building project, and consolidated the

People's army based on such principle, rather than forming the party's army.

Even though Kim Il-sung was the leader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by February 1948,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NAJUA) remained in the outskirts of power within either the government or the party. However, the NAJUA seized control of the military command and ideological education sectors consistently throughout the nation-building process. The North Korean army, in effect, adopted Kim Il-sung's leadership ideology as its guiding ideology and legitimized Kim's anti-Japanese movement as an independence movement.

The 'revolutionary tradition' of North Korea emerged in the army prior to its emergence in the Worker's Party, and gained recognition from all political powers. Before the Korean War, it was in neither the party nor the government that Kim Il-sung held a respected position, but it was within the People's army that he did so. Although various political powers possessed the authority over ideology education in the party and government, the NAJUA maintained their control over the ideology of the military. Through this authority the NAJUA disseminated the notion that Kim Il-sung's anti-Japanese struggles is where the North Korean nation-state derived its legitimacy. This procedure entailed an expansion of political hegemony by seizing control over each individual soldiers' ideological beliefs instead of the entire military. Ultimately, the revolutionary tradition of the KPA was the historical origin of Kim Il-su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construction.

Keywords: North Korean army, Korean Workers' Party, revolutionary tradition,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Chosun People's Revolutionary Army, Fatherland Independence Association, military first policy